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목적 외에 작가와  
 용인문화원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2011년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자재암 해골
수상내역	2011년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작가	김성준
이야기 소재 (Motiv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요산 자재암과 원효대사의 인연</li> <li>2.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크게 깨우쳤다는 일화</li> <li>3.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 2차 왕자의 난을 겪은 후 소요산 행궁에 머물렀던 사건</li> <li>4. 마필수와 오장곤이라는 가상의 인물들 간의 지략대결</li> </ol>
스토리 구성 (Plot)	<p><b>1. 발단</b> : 오장곤이 중병에 걸려 앓는다는 소문이 돌자 마필수가 오장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p> <p><b>2. 전개</b> : 마필수는 노래를 퍼트려 소요산 자재암에 원효가 마셨다는 해골이 있다는 소문을 만들어낸다. 소문의 골자는 해골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아 불로장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시주승으로 둔갑하여 오장곤 앞에 등장한다. 오장곤은 그를 철썩 같이 믿고 해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해골만 구해주면 큰 절을 짓도록 거금을 시주하겠노라 약속한다.</p> <p><b>3. 위기</b> : 의상대에서 고초를 겪은 마필수는 해골을 가지고 한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해골 물을 마신 오장곤은 졸도를 해버린다. 마필수는 사기꾼으로 몰려 내쳐진다. 그는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p> <p><b>4. 절정</b> :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은 모두 오장곤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장곤은 죽는 시늉을 하다가 해골 물을 마시고 별떡 일어섰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사람들은 그 해골을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다.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거머쥐게 된다.</p> <p><b>5. 결말</b> : 마필수는 오장곤에게 복수하고자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오장곤은 더욱 부를 쌓아갔고, 백성들 사이에는 소요산에 원효대사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두루 전파된다. 이성계는 백성들 등살에 못 이겨 소요산을 떠나 함흥으로 떠나버린다.</p>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 자재암 해골

김성준



##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요산 자재암과 원효대사의 인연</li> <li>2.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크게 깨우쳤다는 일화</li> <li>3.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 2차 왕자의 난을 겪은 후 소요산 행궁에 머물렀던 사건</li> <li>4. 마필수와 오장곤이라는 가상의 인물들 간의 지략대결</li> </ol>
스토리 구성 (Plo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단 : 오장곤이 중병에 걸려 앓는다는 소문이 돌자 마필수가 오장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li> <li>2. 전개 : 마필수는 노래를 퍼트려 소요산 자재암에 원효가 마셨다는 해골이 있다는 소문을 만들어낸다. 소문의 골자는 해골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아 불로장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시주승으로 둔갑하여 오장곤 앞에 등장한다. 오장곤은 그를 철썩 같이 믿고 해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해골만 구해주면 큰 절을 짓도록 거금을 시주하겠노라 약속한다.</li> <li>3. 위기 : 의상대에서 고초를 겪은 마필수는 해골을 가지고 한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해골 물을 마신 오장곤은 졸도를 해버린다. 마필수는 사기꾼으로 몰려 내쳐진다. 그는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li> <li>4. 절정 :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은 모두 오장곤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장곤은 죽는 시늉을 하다가 해골 물을 마시고 벌떡 일어섰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사람들은 그 해골을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다.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거머쥐게 된다.</li> <li>5. 결말 : 마필수는 오장곤에게 복수하고자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오장곤은 더욱 부를 쌓아갔고, 백성들 사이에는 소요산에 원효대사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두루 전파된다. 이성계는 백성들 등살에 못 이겨 소요산을 떠나 함흥으로 떠나버린다.</li> </ol>

구 분	내 용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p>마필수 : 파락호에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인간. 오장곤을 등쳐먹으려고 하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다.</p> <p>오장곤 : 농민 출신의 줄부. 하지만 피가 많아 돈을 모으는 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p> <p>천병달 : 오장곤의 아랫사람. 순박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그의 꿈은 시전의 어물전 하나를 꿰차고 호의호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단순함이 마필수의 목을 죄게 된다.</p> <p>오명산 : 오장곤의 아들. 겉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장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고승인 척하는 마필수를 경계하는 인물.</p> <p>그 외 : 자재암 동자승, 동자승인 척하는 동네 아이, 이성계, 주막집 손님 등.</p>

# 시놉시스

## 1. 테마스토리 발굴배경 및 의의

스토리텔링의 궁극적 목표는 제재(題材)에 재미난 이야기를 입힘으로써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대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명산인 소요산에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넣음으로써 소요산을 흥미로운 장소로 만들어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재암에 비해 덜 유명한 태조 행궁지를 이야기 속에 넣음으로써 향후 태조 행궁지도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바로 이러한 점에 본 출판작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2. 스토리 관련 기초 정보

원효대사와 자재암 전설, 원효대사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 이성계가 소요산에 행궁을 마련하여 머물렀던 사건.

## 3. 스토리보드의 매력 포인트

소요산과 무관한 이야기를 중심사건으로 전개하면서도 늘 사건의 중심에는 소요산과 자재암이 놓인다는 점. 바로 이를 통해 독자(관객)들은 소요산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어디에서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들으로써, 소요산을 그 장소로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 4. 줄거리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오장곤은 오래 살 욕심을 부려 이 약, 저 약을 아무렇게나 주워 먹다가 돌이킬 수 없는 증병에 걸린다.

용한 의원들도 포기를 하자 오기가 생긴 오장곤은 전 재산의 반을 내걸고 자신의 병을 치유할 사람을 찾는다.

오장곤이 산송장이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필수가 오장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아 이들을 시켜 해괴한 노래를 유행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착수된다. 노래의 주된 내용은 원효가 냉수 고인

물을 달게 마셨다는 그 해골이 다른 아닌 소요산 자재암에 있다는 것이었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결별한 후 실제로 자재암에 머물렀기에 허풍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마필수는 자신하였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마필수는 오장곤의 집을 찾는다.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시주승으로 변장한 그는 물이 흐르듯 거짓말을 잘도 지어내 오장곤을 현혹한다.

마필수에게 깜빡 속은 오장곤은 천병달과 함께 소요산으로 가 해골을 찾아달라고 매달린다. 마필수는 거찰 건립 비용을 시주 받는다는 조건으로 거래에 응한다.

해골을 미리 준비한 마필수는 다행히 상왕 이성계의 행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검문을 통과한다.

소요산에 도착한 마필수는 천병달을 속일 궁리를 하였으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꿈에서 받은 계시에 확신을 가지게 된 마필수는 의상대에 올라 해골을 파묻어둔다. 그리고는 천병달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해골을 끄집어냄으로써 천병달을 감쪽같이 속인다.

순진한 천병달은 오장곤에게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오장곤은 천병달과 마필수를 믿고 새벽에 받은 이슬을 해골에 담아 들어킨다. 그 물을 마신 오장곤은 혼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사기꾼임이 들통난 마필수는 오장곤의 집에서 쫓겨나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된다.

마필수가 사라지자 오장곤은 슬며시 눈을 뜬다. 그가 소생하자 아들 오명산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오장곤은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꾸민 일임을 밝힌다. 처음부터 그는 마필수의 사기를 역이용할 속셈이었음을 아들에게 설명해준다.

마필수를 거꾸로 이용한 오장곤은 해골 물을 마시고 소생하였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그가 산송장이라는 것은 장안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한성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해골을 사고자 찾아온다.

오장곤은 해골을 절대 팔지 않았으며, 그럴싸한 사람들에게만 한 모금씩 마시게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수 만 냥을 버는 거부가 될 수 있었다.

오장곤이 해골 물을 마시고 기적처럼 소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소요산을 찾기 시작했다. 원효대사의 기운을 받아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소요산 행궁에 머물던 이성계는 밀려드는 백성들이 부담스러워 행궁을 함흥으로 옮겨버린다.

# 다재암 해골

## 1. 부자 오장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그 여파는 민간에까지 미쳤다. 고려조에 행세하던 귀족·부자는 한순간에 망해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흠어진 부(富)는 새로운 임자를 만나기 마련이다. 오장곤도 그 순풍을 타고 팔자를 고친 신흥부자 중의 하나였다.

오장곤은 대대로 한성에서 농사짓던 농민에 불과했다. 물려받은 땅은 제법 많아서 남산 북쪽에서는 땅 꽤나 가진 농군으로 통했다. 그러다가 태조가 도읍을 한성으로 옮기고부터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한산하던 한성에 궁궐이 세워지고, 관청이 들어서고, 문무백관들이 물려들자 자연스레 그가 가진 땅의 가치가 올라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이 귀에 걸린 그였지만, 선불리 전답을 처분하는 대신 가만히 추세를 지켜보았다. 사람이 많아지면 시장부터 들어설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광화문 앞에 시전이 생겨나자 그는 패재를 불렀다. 힘들여 농사를 지어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던 땅마지기였다. 그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답이 금덩어리가 되어 돌아오자 오장곤은 일약 한성에서 몇 째 가는 부자가 된 것이다.

오장곤은 주로 비단과 서책, 약재 등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다루었다. 이 점은 평민에 불과한 오장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비록 진짜 양반은 될 수 없지만, 지체 높은 양반들을 상대하다보니 자신도 상류층이라도 된 양 어깨가 으쓱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법인지,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의 팔자가 한탄스러워졌다.

“이 놈의 팔자는 어떻게 된 게 이제 좀 살 만해지니 죽을 날을 받아놓게 생겼군. 고려가 진짜 망해서 조선이 몇 십 년 더 빨리 건국 됐으면 한 평생 후련하게 누릴 볼 일이었는데!”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한탄을 자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장곤의 나이 어느덧 환갑, 남들보다 장수를 했다고 하나 이제 갓 부자가 된 그로서는 방금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을 원 없이 살아보고도 싶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래서인지 곳간 가득한 곡식에 금은보화에 고래등짝 같은 집채를 보고 있노라면 자긍심보다는 아쉬움만 묻어 나왔다.

“여봐라, 몸에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내게 먼저 대령하라! 그걸 먹고 천수를 누릴 터!”

오장곤은 아랫사람들이 채집해오거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상품의 약재를 입에 욱여넣곤 하였다. 산삼, 녹용, 웅담에 이르기까지 그가 취하지 않은 약재가 없다 할 정도였다. 창자로 들어가는 약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도 그만큼 늘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 때문이었다.

얼마나 이 약재, 저 약재를 입에다 아무렇게나 털어 넣었는지 그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쫄쫄, 당신 병은 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섭취하였기 때문이오. 이제는 병을 치유하고자 약을 쓰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일 거요. 게다가 노환까지 겹쳤으니 죽은 화타가 벌떡 일어난들 당신의 병만큼

은 어찌지 못할 게요.”

진맥을 하던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오장곤의 무식을 탓하였다. 오장곤은 떠나려는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보쇼, 의원 영감! 나 좀 살려주소.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 다 드리겠소. 어떤 약이 묘약인지 말만 하면 아랫것들이 모조리 구해올 것이니!”

의원은 그런 오장곤이 답답하였던지 또 다시 혀를 차며 대꾸한다.

“이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했소. 이제 어떤 약이든 쓸모가 없다니까. 당신이 이미 약을 원체 많이 먹어서 이제 더 먹으면 바로 독약으로 작용하고 말 거요! 그러지 말고 마음이나 잘 추스르시구라.”

의원은 돈도 마다하고 떠나버렸다. 오장곤은 허탈한 심사에 사랑방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하인 중 누군가 그의 표정을 봤더라면, 산송장이 바깥주인 사랑방에 누워 있다고 난리법석을 피워대고도 남음이였다.

한참을 맥 빠진 사람처럼 앓는 소리만 내던 오장곤은 무슨 결심이 섰는지 젓 먹던 힘을 짜내 하인을 불렀다.

“내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전 재산의 반을 줄 터이니, 너는 장안 구석구석에 방(榜)을 붙이도록 하여라.”

## 2. 소문

한성 곳곳에 방문(榜文)이 붙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돈이 눈이 먼 의원들이 실력도 없이 오장곤 집을 방문하였다가 된서리만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제법 용하다는 의원들도 몇몇 오장곤을 진맥 하였으나 다들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하늘에 매인 것인데 의원인들 어쩔 도리가 있겠나. 그저 때 되면 저승 갈 차비를 해야 하는 게 순리지.”

“그거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 얘기고, 오 부자처럼 땡땡거리는 부자가 어디 황천길이 달갑기야 하겠어?”

“달갑든 안 달갑든 염라대왕이 부르면 가야지. 부처님이라면 모를까, 사람이 어떻게 저승사자 성화를 버틸꼬!”

방문(榜文) 앞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며 오장곤을 비웃었다. 옆에 있던 어느 사내가 그들의 말을 듣다가 무릎을 쳤다.

“맞아!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가 부처님을 외치며 혼자서 킁킁거리자 사람들은 그를 실성한 작자라 하여 멀찌감치 물러섰다. 사내는 계속 묘한 웃음을 띠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내의 이름은 마필수. 고려조에는 개경에서 행세 꽤나 하던 집 자제였으나 위낙에 파락호에 오입쟁이인지라 그 많던 재산을 몽땅 잃고서 한성 바닥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돈 되는 거래면 뭐든지 일단 덤비고 보는 자였으므로 오장곤이 내다붙인 방문에 구미가 당기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꽤 많은 마필수도 사람 살려내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기에 공을 치나 싶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꾀를 하나 일



러준 셈이 되었다.

마필수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엿을 사주며 말했다.

“너희들, 내가 재밌는 노래를 하나 가르쳐줄까?”

아이들은 엿을 쪽쪽 빨면서 마필수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늘의 기둥을 받친다던 도끼자루

서라벌 야합에 요석공주 태몽 꾸네.

아비가 누구들 알아서 무엇 할까.

해골 물 달게 마신 원효대사 아닌가.

아아, 그 물 한 바가지 내게도 주소.

진시황 못 구한 불로초가 아닐쏘냐.

마필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도 재미있었던지 곧잘 따라 불러댔다. 그때부터 노래는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 가사가 음란한 데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혼을 내며 금지했다. 그러나 막으면 막을수록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더 널리 퍼트려댔다. 굳이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古事)를 끌어들이 것도 없이, 말이란 것은 참 묘한 힘이 있는데, 처음에는 얼토당토않게 여겨지던 것이 자꾸 반복되면 참인 듯 여겨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마필수가 퍼트린 노래도 점점 생명력을 얻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실체 있는 소문이 되기에 이르렀다.

“원효대사가 마신 그 해골 물을 한 바가지 마시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구먼.”

“예끼,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될 성싶은가? 설사 그렇다 해도 몇 백 년 전에 대사가 바가지로 썼다는 그 해골을 어디 가서 구하겠나? 벌써 흙이 되어 흩어졌겠지.”

주막에서 두 사내가 해골 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이때다 싶어 마필수가 끼어들었다.

“거 모르는 소리 하지마쇼. 부처님 진신사리가 먼지가 되어 허공에 붕 뜬답디까? 흙이 되어 사라진답디까? 모름지기 묘한 힘이 있는 것은 부시고자 해도 부셔지지 않는 법이요. 대사께서 마시고 득도한 그 해골바가지가 세월에 녹는다면 그거야말로 허풍인 게지! 저 인왕산 꼭대기의 바위조차 수 천 년을 너끈히 버티는데, 불법을 완성시킨 해골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재주 좋은 마필수가 걸쭉하게 말쑥씨를 뽑아내자 사람들은 옹다구나 싶어 입을 헤 벌린 채 고개만 끄덕거렸다. 누군가 호기심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는 오장군의 집에서 약재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름은 천병달이라 하였다.

“이보슈, 그렇게 잘 알면 그 좋다는 해골이 어디에 있는지 댁은 아슈?”

마필수는 시치미를 뚝 떼며 입을 열었다.

“그걸 알면 여기에 있게? 벌써 내가 한 바가지 마시고선 임금님께 진상하여 현감 자리 하나 꿰찼지!”

그러자 좌중이 ‘옳거니!’, ‘그 양반 재밌구만!’ 하며 왁자지껄 웃어댔다. 그러나 마필수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려보았다.

“거 어디더라. 이담(伊潭, 동두천의 옛 지명) 어딘가에 있다는 소릴 들었소만, 에이, 뜬소문이겠지. 설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마필수는 자신도 못 믿겠다는 시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뒷일은 상대방이 알아서 풀어주었다.

“가만 있자……. 이답이라……. 이답……. 아! 거기 소요산이 있지 않소!”

천병달은 난데없이 소요산 얘기를 꺼냈다. 마필수는 이 양반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나 싶어 천병달이 지껄이는 대로 놔둬보았다. 천병달은 수수께끼의 아귀라도 맞춘 것처럼 갑자기 신이 나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했다.

“이답에 소요산이 있잖소. 그러니까 그 소요산이 어디냐! 원효대사께서 요석공주와 야합을 하여 설총을 낳으신 후 숨어 들어간 명산이 아니냐 이 말이외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요?”

옆에 있던 어떤 사내는 아직도 말뜻을 모르겠다는 듯 천병달에게 되물었다. 천병달은 답답하다는 듯 그를 일깨웠다.

“허허, 이런 답답한 사람 봤나! 서라벌에서 야합한 원효대사가 왜 굳이 천 육백 리 길이나 걸어서 소요산까지 가셨겠느냐 이 말씀이지!”

마필수는 일이 잘 풀리겠구나 싶어 입이 금세라도 벌어질 것 같았으나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도리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깨우쳤다는 듯 천병달에게 맞장구를 쳤다.

“오호라! 형씨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하군. 그러니까 대사께서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가 해골 물을 마신 곳이 바로 소요산이라는 게요? 그래서 크게 깨우친 그곳을 중생 구제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자재무애(自在無碍)의 호방한 기상으로 자재암을 세우셨다 이 말씀인가? 그렇다면 해골은 바로 소요산 어느 곳에 있음이 틀림이 없으렸다! 암, 암! 그렇고말고! 제 아무리 소요산이 경기 소금강이라 한들 설마 하니 대사께서 단풍구경이나 하러 그곳까지 가셨을 리 만무하지! 암! 그렇고말고!”

마필수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 천병달도 더 많은 걸 알게 됐다는 듯 흡족하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엉덩이를 들쭉거리며 꿈틀거리는 꼴이 지금에라도 당장 소요산으로 달음질할 기세 같았다.

‘이거 잘만 하면 주인 나리한테 제대로 공을 세우겠는걸! 어디, 팔자 제대로 한번 고쳐볼까.’

천병달은 이런 꿈꿨던 속을 간직한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오장곤의 집으로 곧장 갔다. 마필수는 녀석 좋은 미소 뒤에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서 천병달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리! 나리!”

집에 돌아온 천병달은 야심한 시각이었으나 오장곤의 사랑방 앞에서 주인을 애타게 불렀다.

“무슨 일인가!”

오장곤의 아들이 천병달을 꾸짖으며 말했다. 천병달은 반드시 오장곤을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다. 그의 말투에 거짓이 없어 보였으므로 오장곤의 아들은 천병달을 막아서지 않았다.

“어쩐 일로 이 시간에 그리 호들갑을 떨어대는 게냐!”

오장곤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지만, 주인다운 서릿발은 아직 잃지 않은 듯했다. 천병달은 오장곤 쪽으로 바짝 다가왔더니 그간의 소문과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다. 말을 다 들은 오장곤은 더 듣기도 귀찮다는 투로 그를 물리치고자 했다.

“이 놈이 실성을 한 모양이로구나. 그래, 네 놈 눈에는 내가 산송장이 다 되니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삼정승 육판서까지 상대하던 오장곤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헛소리를 지금 내게 믿으라는 게냐!”

오장곤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리자 오장곤의 아들은 천병달을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천병달은 억울한지 어이구, 어이구 하며 제발 믿어달라고 읊소하듯 간청했다.

“뭐하느냐! 어서 이 미친놈을 끌어내지 않고!”

제 판에는 공을 세워 시전 행수 자리라도 얻어 볼 요량이었던 천병달은 마당 한 구석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끝내 아쉬웠던지 믿어달라는 말을 연발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얼굴에 끼여어진 찬물밖에 없었다. 천병달은 자신에게 냉수를 퍼붓는 바가지를 보자니,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실성한 듯 제 주인을 애타게 불러대는 것이었다.

‘하이고, 저 바가지를 보자니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생각밖에 안 나는구나!’

천병달은 이렇게 속이 타들어갔으나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 3. 대면

날이 밝자마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대문 밖에서는 반야심경 읊는 소리가 씨암탉 꼬꼬댁 울음과 뒤엉켜 있었다. 하인 한 명이 나가보니 시주승 한 명이 동자승 하나를 데리고 서 있었다.

“스님, 죄송하지만 시주는 못하겠습니다요.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서 원!”

그 말을 들은 시주승은 주저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는 왔던 길로 발길을 잡아 몇 걸음을 걷더니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탄식했다.

“허허,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보름달이 속을 비워내면 불법(佛法)으로 채워 넣으면 될 것을! 허허!”

시주승은 알듯 모를 듯 하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불심이 깊던 하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주승을 불러 세워 그 말뜻을 물었다.

“스님, 그제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달도 차면 기울고, 보름달의 속이 비면 불법으로 채우라니요?”

“자네 주인을 두고 한 말일세. 집착에서 고통이 생기는 법! 텅 빈 욕신을 붙잡고자 약재로 탐심 가득한 배를 채우니 부처님 주신 생명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갈꼬. 약재에 밀려 보름달이 텅 비었구나! 초승달이 되었구나! 그름이 머지않았구나!”

하인은 무식했기에 선문답 같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주승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냅다 달려 오장곤의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가 오장곤의 아들을 데리고 대문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주승은 웬일인지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이 스님이십니다요. 스님께서 하도 비범한 말씀을 하셔서 나리를 모셔온 것입니다요.”

하인의 말을 들은 오장곤은 시주승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느 시주승들처럼 삿갓을 깊숙이 눌러 썼기에 그 용모를 살필 수는 없으나, 당당한 행색으로 보아 평범한 시주승 같아 보이진 않았다. 오장곤의 아들은 합장을 하며 시주승을 공손히 대했다.

“저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오명산이라 합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여쭙고자 무례를 범하게 댔습니다. 청컨대,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명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주승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발길을 돌렸다. 그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름이 되면 다음 번 달이 태어나는 법, 자연의 순환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평민 신분이라 하나 하인보다는 배움이 깊었던 오명산인지라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름이라 하면 아버님을 뜻하는 것이고, 다음 번 달이라고 하면 나를 일컫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아버님의 대를 이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되는데……. 아뿔싸! 그럼 정말 아버님이 이대로 돌아가신다는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친 오명산은 시주승을 붙잡고 늘어졌다.

“아까 스님께서 보름달의 속이 비면 불법으로 채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으로 저희 아버님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뜻인지요? 스님, 부디 이 불쌍한 중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주승은 끝내 뿌리치고 갈 모양새였다. 오명산은 그런 시주승을 결단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인 듯 더 애타게 매달렸다. 명이라든 명이라는 다 불려본 그였다.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주승에게 희망을 걸어야 했다. 둘이서 간다, 못 간다 하며 옥신각신하기를 여러 차례, 시주승은 못 이기는 듯 집 안에 들어섰다.

“허허,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 기운이 더 험하군요. 아무래도 속세의 약으로는 주인의 병환을 고치기 힘들 듯하오.”

시주승은 낙담어린 말부터 늘어놓았다.

“자자, 마당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저희 아버님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시주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명산은 끌고 들어가다시피 하여 시주승을 오달곤의 사랑방에 앉혔다.

“뉘시냐, 이 스님께서서는?”

실눈을 뜨고 누워 있던 오장곤은 시주승을 발견하고서 아들에게 물었다.

“고명하신 스님이신데, 아버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몸인데, 네가 괜한 일을 또 했구나. 부처님 앞으로 시주나 들킨다면 이 애비 극락왕생하는 데 노자나 보태도록 하여라.”

오장곤은 이렇듯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시주승은 염주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니 안타깝다는 투로 말을 꺼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할 일이나 불심이 깊은듯하니 한 가지 방도를 일러드리겠소.”

방도라는 말에 오장곤의 축 늘어진 귀가 번쩍 뜨였다. 세속의 온갖 이욕은 다 부렸으나 승려에 대한 숭앙심만큼은 아직 남아 있던 그였다. 스님이 무슨 돈 욕심을 부려 자신에게 허튼 수작을 부릴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장곤은 당장에라도 벌떡 일어설 사람처럼 잠시 활기를 되찾아 물었다.

“스님! 그 방도란 게 무엇인지요? 늙은 몸이나마 천수를 누리게 해주신다면 스님께 시주하여 큰 절을 부처님께 바치겠나이다!”

“어허! 불심에는 재물이 오가지 않는 법이오!”

시주승은 절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투로 오장곤을 나무랐다. 그러자 오장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더욱더 시주승을 공경히 대했다.

“당신의 병은 보름달처럼 넘쳐서 생긴 것이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내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필시 당신은 몸에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섭취한 게지. 아니 그렇지?”

시주승이 소상한 내막을 꿰뚫자 오장곤은 두려운 한편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 그리도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요. 아이고, 스님! 이제 좀 살 만하니 저승에서 손짓합니다. 20년, 아니 딱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

오장곤은 아들 앞에서 체통도 잃은 채 거의 울먹이듯 매달렸다. 시주승은 이미 속세에 초탈하였으나 중생구제의 마음으로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소요산에 가면 원효대사께서 머무르시던 자재암이 있소. 거기 부근에 해골이 하나 묻어져 있는데…….”

시주승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오장곤은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간밤에 천병달도 소요산과 원효대사 얘기를 꺼냈음을 상기해낸 것이다. 오장곤은 순간 오싹해짐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다. 시주승은 잠시 뜬눈을 들은 뒤 주위를 물리고선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 해골은 보통 해골이 아니요. 바로 원효대사께서 대각하신 그 해골이지. 그러니까 중이 그 물을 마시면 해탈하여 부처가 되고, 중생이 마시면 불로장생을 누린다 이 말이지요.”

“아이쿠! 어젯밤에는 천가 놈에게 괜한 짓을 했구나! 스님, 그러면 그 해골이 자재암 어디쯤에 묻혀 있는지요? 그걸 찾아내서 스님께선 부처가 되시고, 저는 불로장생을 누림이 어떠할까요?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인력은 제가 충당하겠습니다요.”

오장곤은 이 와중에도 장사치 버릇이 스멀스멀 나와 협상을 하려 했다. 시주승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니었다.

“좋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해골을 찾아낸다면 커다란 절을 시주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셔야 하오. 내 소요산에 거찰을 건립하여 불국을 만들어볼 터이니!”

“암요! 암요! 해골을 찾아만 주신다면야 대찰이든 거찰이든 스님 원하는 대로 지으십시오! 그때까지 제 명줄은 단단히 동여매고 있겠습니다요!”

오장곤은 정말 생기가 돌아보였다. 시주승은 다음날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대문을 나섰다. 오장곤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르자 마필수는 샷갓을 벗어던지며 동자승을 놓아주었다.

“옛다, 가서 엿이나 사먹어라.”

동자승 행세를 했던 아이의 손에는 엽전이 두둑이 쥐여져 있었다.

#### 4. 임금의 뒤를 쫓다

다음날이 되자, 마필수는 다시 샷갓을 눌러쓰고는 오장곤의 집을 찾았다. 그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요?”

하인들은 제 주인에게 그리하듯 마필수를 깎듯이 모셨다. 그가 왔다는 전갈을 받자 오장곤이 부축까지 받아가며 몸소 마루에 나왔다.

“스님,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요산으로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당에는 그저께 주막에서 봤던 천병달이 등짐을 메고 있었다. 마필수는 행여나 천병달에게 얼굴이 들



길까 싶어 샷갓을 더 깊게 눌렀다. 천병달 주위로 여러 명의 장정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험상궂게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시전 왕패임이 분명했다.

마필수는 아차 싶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정도의 가산을 일군 오장곤이 아니던가. 그런 그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리 없다. 왕패들은 자신을 도와 해골을 찾는 한편, 자신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만약 소요산에 해골이 없다면 저 왕패들에게 끌려 이 마당에 내동댕이쳐질 것이고, 해골이 발견된다면 혼자 독차지하여 줄행랑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이곳까지 모셔올 것이다. 하지만 소요산에 그따위 해골이 어디 있던가. 원효가 바가지 삼아 냉수를 들이켰다는 해골은 애초에 없다. 마필수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은밀히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면 관가에서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필수는 이렇게 말하며 어떻게든 왕패들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오장곤은 빙그레 웃으며 마필수를 안심시켜주었다.

“괜찮습니다. 왕패들은 가마꾼 행색을 할 것이고, 스님은 여염집 아낙처럼 가마에 태워져 갈 것입니다. 천가는 스님의 집사 노릇을 할 것이고 말입니다. 어느 관가에서 지체 높으신 댁의 마나님 가마를 들춰본 답니까?”

오장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계획까지 세우자 마필수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오장곤의 요구에 응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쩐다. 가짜 해골을 가져올 계획이었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군. 왕패 놈들 때문에 도망치기도 글러먹었어.’

마필수는 이렇게 고심하였지만 순순히 가마에 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마필수를 태운 일행이 막 대문을 나서려던 때에 저자거리에서 요란스런 행렬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렀거라! 상황 전하 납신다! 물렀거라!”

상황이 행차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왕패들은 가마를 도로 마당에 놓았다. 행렬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문을 나서야 했다. 다들 멍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장곤은 장사꾼답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상황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신다는 거야? 지금 왕자의 난 때문에 정국이 어수선했는데……. 여봐라, 행차가 지나가거든 누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하인이 돌아왔다.

“상황 전하께서는 소요산에 행궁을 지어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신다 합니다.”

오장곤은 아차 싶었다. 이미 원효대사의 해골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지고도 남았다. 그 소문이 상황이 계신 구궁궁궐이라 하여 피해갈 리는 없다. 자신에게 소요산 얘기를 고했던 천병달 같은 자가 궁궐이라고 해서 없겠는가. 오장곤은 입이 바짝 탔다. 자신은 죽어가고, 태조도 늙기는 때 한가지였다. 둘 중에 먼저 그 해골을 찾는 자는 살고, 그러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 생과 사의 냉혹함 앞에서 신분의 법도 따위를 따질 여유가 없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태조까지 소요산으로 향하자 마필수에게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의심이 모조리 풀려버렸다. 이제는 오장곤도 해골 이야기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계산이 빠른 마필수가 오장곤의 표정을 놓칠 리가 없다. 마필수는 자신의 마음도 급하다는 듯 시늉하며 오장곤을 재촉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소!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하질 않았소! 아까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이제 상왕께서 먼저 소요산으로 발길을 잡으셨소. 감히 상왕의 행렬을 추월하여 앞장 설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거 원!”

오장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든 걸 마필수에게 맡겨버렸다. 마필수는 노잣돈을 두둑이 받은 후에 혼자 떠나려고 하였으나, 오장곤이 한사코 붙여주는 천병달 만큼은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작자처럼 순진한 사람이라면 다루기도 용이하다 싶어 팔려둔 채 길을 나섰다.

저 멀찌감치 이성계의 긴 행차를 바라보고서 쫓듯이 그 뒤를 따라갔다. 천병달은 이번 큰일을 자신에게 맡긴 주인에게 감사라도 하는 듯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는 역시 순박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 일만 성사시키면 시전의 어물전 정도는 자신에게 떨어질 거라 기대하는 듯 꿈길을 걷는 사람처럼 출랑출랑 걸음을 재촉했다.

‘이 치는 꽤나 순진하군. 그나저나 이 사람을 따돌리고 자재암 부근에 이 해골을 묻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림자처럼 쫓아오니 원! 차라리 노잣돈만 챙겨서 개경으로 달아날까. 아니지, 일을 여기까지 벌여놓았는데 그깟 노잣돈 300냥으로 만족해선 안 되지. 파락호 인생 40년이 아니던가. 강태공은 궁팔십달팔십 하였다는데, 이 마필수는 궁사십달사십 하고야 말리라!’

마필수의 봇짐에는 간밤에 묘지에서 파낸 해골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이걸 자재암에 묻고서는 천병달이 보는 앞에서 다시 파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숙정문을 통과할 때의 검문이었다. 관졸이 봇짐을 뒤져보기라고 한다면 말짱 도루묵은 물론이고 옥에 갇힐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돕는지 마침 태조가 소요산으로 행차를 가신다 하니 그 뒤만 쫓으면 될 게 아닌가. 감히 태조의 행렬을 막을 나줄은 없다. 마필수는 자신의 억센 운도 이제는 풀리는가 보다 하고 안도하였다.

## 5. 산중소요(山中逍遙)

과연 태조 덕분에 해골을 들키지 않고 소요산에 도착한 마필수 일행은 산 초입에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였으나 어느새 해가 산마루 뒤로 넘어갔다.

소요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가히 그 풍광이 경기 소금강이라 할만 했다. 때는 늦가을이라 온 산 천지가 단풍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해가 졌지만 산마루로부터 미끄러져 나온 햇살이 단풍나무에 스며들었다. 낮에 와본 사람은 반드시 산의 밤풍경을 보고자 할 것이고, 밤에만 와본 이는 낮까지 머무르고자 할 정도로 산에는 오묘한 아름다움이 깊이 배여 있었다.

주먹밥을 다 먹은 일행은 얇은 계곡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물가의 작은 바위를 돌다리 삼아 걷던 둘의 시선 안에서 세상이 온통 누렇게 보였다. 광원이 꺼진 후에도 빛의 잔상이 남듯이 계곡에는 누리끼리한 잔광이 남아 계곡물에 적셔진 채 반사되고 있었다. 이따금 싸늘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으면 때가 된 단풍은 낙엽이 되어 계곡물 위로 떨어졌다. 그것들은 갈 곳을 정해두지도 않은 채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작은 물고기 다섯 마리가 줄을 지어 여기저기 쏘다니는 게 보였다. 마필수는 그것이 원효가 운제산 자락의 오어지(五魚池)에서 똥을 누워 방생했다는 다섯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로서는 그 물고기조차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

“경치 한번 좋구만!”

안 그래도 유쾌해하던 천병달이었다. 산중의 명화(名畵)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없었으리라. 마필수도 일이 술술 풀렸기에 긴장이 많이 느슨해진 터였다. 그도 소요산을 두 눈에 새기면서 길을 재촉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자재암에 도착해야했다.

“광명스님, 계십니까?”

자재암에 도착하자 마필수는 광명스님을 불렀다. 누가 모든 간에 정말로 광명스님이란 사람이 자재암에 머물고 있고, 마필수는 그와 막역한 사이로 여겨질 법했다. 그만큼 마필수는 능청떠는 데에는 선수였다. 밖이 소란스럽자 한 동자승이 나와 마필수를 응대했다.

“누구신지요?”

“나는 한성에서 왔느니라. 광명스님 계시느냐?”

광명스님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스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허허! 그 사람 어느새 바람처럼, 물결처럼 떠나버렸군 그래! 하긴, 이 세상 어딘들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도 계신 법이지. 역시 그 사람다워. 산사(山寺)를 버리고 시전바닥에서 중생을 교화하러 갔나 보군.”

어린 동자승으로서는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광명스님이란 분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해볼 따름이었다.

“그럼 다른 스님들은 어디 계시느냐? 어쩌서 너 혼자 있는고?”

동자승은 다른 스님들은 상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법회에 가셨고, 이틀 후에나 돌아올 것이라 말해주었다. 마필수는 또 다시 왜재를 불렀다. 정말 부처님이 자신을 돕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지금 마음 같아선 오장군에게서 뜯어낼 거금으로 작은 암자 하나쯤은 시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동자승은 손님들을 안으로 모셔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가뜩이나 미련한 천병달이었기에 동자승의 안내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거처에 짐을 풀자마자 천병달은 자리에 누워 흥얼거렸다. 마필수는 그런 천병달이 얄밋기도 하여 채근했다.

“자네는 세안도 하지 않는가? 냄새 나니 냉큼 가서 좀 씻고 오게.”

마필수는 천병달을 따돌리고서 해골을 묻으러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련한 천병달은 주인의 엄명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만 했다.

“스님, 냄새가 나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인 나리께서 절대 스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요. 그나저나 스님께서는 방 안에서도 샷갓을 쓰고 계십니까요?”

샷갓을 벗으면 천병달이 자신을 알아볼 게 분명했다. 가뜩이나 왼쪽 눈썹 위에 새끼손톱만 한 점이 있어 눈에 잘 띄는 인상이었다.

“이런 미련한 중생을 봤나! 내 전생에 하늘에 지은 죄가 커 속죄하는 심정으로 샷갓을 눌러쓰고 다닌다네.”

“여긴 방 안이라서 하늘이 안 보이는데쇼.”

“거참, 무식한 작자 같으니라고! 시방세계 어디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던가. 부처님이 내려다보고 계



신데, 저까짓 지붕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방 밖이든 안이든 매 한가지일세.”

마필수가 능청을 떨자 천병달도 더는 토를 달지 못했다. 그래도 마필수에게서 일초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오줌보가 터지려고 해도 마필수가 뒷간을 갈 때에만 같이 가곤 했다. 오장곤은 천병달의 이런 미련스러움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어 마필수와 동행토록 했던 것이다. 천병달은 오줌 몇 번 참으면 시전 행수가 되겠구나 싶어 웬 떡이냐 하는 표정으로 싱글벙글거리기만 하였다.

‘아무래도 저 치가 똥아떨어져야 해골을 묻을 수 있겠군.’

## 6. 만석꾼의 꿈

동자승이 밀어다준 사찰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천병달은 앓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도 정신을 번뜩 차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마필수가 잠자코 옆에 있음을 확인하고서는 안심하였다.

“스님, 저 몰래 어디 가실 생각일랑 일절 마슈. 우리 주인 나리께서…….”

“알았네, 알았어. 그 놈의 주인 타령 좀 그만하게!”

천병달을 한 번 꾸짖은 마필수는 속이 후련했던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마필수도 노곤하였던지 옆에 앓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든 듯했다.

천병달이 드르렁드르렁 코까지 골자 마필수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싶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해골을 품에 안고 가만히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다. 의상대에 휘영청 보름달이 걸려 속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마필수는 해골을 어디쯤에 감춰드는 게 더 그럴싸할까 싶어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웅전으로 가는 좁은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난데없이 육조거리만큼이나 넓은 대로가 나오는 게 아닌가! 분명 자신의 거처와 대웅전은 삼십 보 가량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수백 보도 더 걸었던 것이다.

‘요상한 노릇이로군. 원효가 지내던 곳에서 원효 이름을 팔아 수작을 부리니 별이 떨어지기라도 한 겼가. 그럴 리가 있나.’

마필수는 잠시 해괴한 생각에 잠겼던 자신이 우스웠던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은 끝없이 쭉 뻗어 있었고, 아무리 걸어도 대웅전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작은 절 안에서 길이라도 잃은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미 절 밖을 헤매고 있는 걸까.’

마필수는 귀신에라도 홀린 듯하여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별안간 의상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보름달이 산산이 조각나더니 집채만 한 돌무더기로 변하는 게 아닌가! 돌덩어리는 옆으로 새지도 않고 곧장 마필수 쪽을 향해 떨어졌다. 마필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돌 하나가 그의 가슴팍에 박히자 그는 ‘억’하고 비명을 질렀다.

눈을 떠보니 그게 꿈이었구나 싶었다. 천병달의 육중한 넓적다리가 마필수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다.

“이런 몸쓸 잡버릇 같으니라고!”

마필수는 신경질이 났으나 천병달이 깰까 싶어 조심스레 다리를 치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대웅전 앞에 해골을 묻어 두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꿈이 심상치 않았다. 이것을 흥몽으로 볼 것이냐,

길몽으로 볼 것이냐. 해몽하는 요령을 배운 바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아! 달이 조각나서 수만 조각의 돌무더기가 내 품으로 떨어졌어. 만 개의 돌이면 만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필시 내가 만석꾼이 된다는 길조가 아닌가! 넓은 길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데 달은 의상대 위에서 부서졌다. 그렇다면 대웅전이 아니라 의상대에 해골을 묻어야 한다는 말이군. 제기랄!’

꿈을 철썩 같이 믿은 마필수는 하는 수없이 도로 밖으로 나왔다. 마침 절에 동자승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대웅전에 가서 땅을 파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는 기어이 대웅전 계단 옆에 무릎을 꿇고서 해골을 끄집어내 의상대로 향했다.

보름달이 흰하게 밝다고는 하나 야심한 시각에 산중에서 해골을 들고 다닌다는 게 결코 흥겨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필수는 원효가 깨달았다는 ‘일체유심조’를 뇌까리며 두려움을 물리쳤다.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건 해골일 뿐이다. 원효는 해골 물을 달게 마셔 득도를 했다. 나는 해골을 파묻어 만석꾼이 되면 그만인 게지.’

그는 보름달에 의지해 의상대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꼭대기에 해골을 파묻었다. 누군가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결코 사람이라고 보진 못할 것이다. 그만큼 그는 사람보다는 귀신에 가까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필수는 마필수대로 두려워 덜덜 떨었다. 산짐승이 낙엽이라도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소스라쳐 놀라곤 했던 것이다.

‘바스락’

어디선가 또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린다.

‘바스락’

이번엔 더 가까운 데서 들린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온다.

“거기 누구요!”

이 시각 산중에 자신 외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공포에 몸서리치던 마필수는 땅을 도로 묻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대꾸는 없었다.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이제 거의 등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마필수는 얼굴 가죽이 곤두서 수염이 하늘을 향해 뻗을 것만 같았다.

“누구나니까!”

그는 또 다시 어둠을 향해 고함쳤다. 야차의 아가리 속처럼 시커먼 야산(夜山)을 겁에 질린 울먹거림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 7. 해골바가지로 돈을 푸다

“접니다, 스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당신 누구요? 밝은 데로 나와 보시오.”

“저라니까요. 스님.”

달빛에 비친 사람은 천병달이었다. 이걸 무슨 사람을 아예 잡을 작정을 하나.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할 일이지.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슬며시 다가오면 간 떨어지라는 말밖에 더 되나. 마필수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자신이 해골 묻는 꼴을 행여 들킨 게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게요?”

“방금 왔습시다요.”

“왜 온 거요?”

“스님도 참, 주인 나리께서 스님한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요. 자나 깨 보니 스님이 안 보여서 동자승에게 물어보니 이곳 의상대 쪽으로 갔다고 합디다.”

동자승이 자신을 봤다는 말에 마필수는 적잖이 불안해졌다. 혹시 대웅전에 해골을 묻었다가 다시 파낸 것까지 봤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대웅전 처마는 넓어서 달빛을 가려주기에 적당했다. 동자승이 대웅전에서 자신을 봤다손 치더라도 해골까진 못 봤으리라.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마필수는 비로소 안도했다.

“여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천병달은 마필수의 어깨 너머를 힐끗 보며 상황을 살폈다. 안정을 찾은 마필수는 다시 허풍을 떨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의상대 꼭대기에서 달이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그 달 모양이란 게 보름달도 아니고, 반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승달도 아니었소. 원뿔처럼 아래는 둥글고 넓은데, 끝은 뾰족했다 이 말이오. 나는 꿈속에서도 그것을 참 기이하게 여기다가 불현듯 잠에서 깬소. 가부좌를 틀고 자리에 앉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보니 그것은 달이 아니라 필시 원효대사의 삿갓이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소. 대사께서 평생 쓰고 다니시던 그 삿갓 말이오. 나는 웬대구나 싶어 그 삿갓이 내걸려 있던 이 의상대에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런데 이게 웬일! 여기저기 땅을 파다보니 정말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겠소!”

마필수는 정말 방금 발견하기라도 한 듯 두 손으로 조심스레 잡은 해골을 내보였다. 천병달은 깜짝 놀라 해골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우리 주인 살았구나! 내 어물전의 마른 오징어 냄새가 산중에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아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이 의상대에 내걸렸구려!”

마필수는 그런 천병달을 속으로 비웃으며 히죽거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은 ‘저치는 참말로 바보에 천치구나!’하는 확신에 찬 것이었다.

해골을 사이에 두고 둘이서 감격에 겨워하던 차에 산 아래가 울긋불긋해져오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둘은 지체 없이 하산하여 한성으로 발길을 잡았다. 마필수로서도, 천병달로서도 돌아가는 길은 더 없이 가벼웠다. 마필수는 문득 저고리 안의 두툼한 계약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해골을 무사히 가져오기만 하면 대찰을 세울 거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조가 적힌 증서였다. 말하자면 조선에서 가장 값비싼 종이였던 셈이다.

“스님, 이제 그 증서만 있으면 소요산에 큰 절을 지어 불법을 설파하실 수 있겠습니까요.”

어물전이 눈에 어른거리는지 천병달의 입가에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날 저녁 오장곤의 집에 도착하자, 오장곤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아직 살아있군. 오늘내일하는 영감이 그새 송장이 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야. 하마터면 그 짓을 하고서 돈 한 푼 못 받았을 뻔했구나!’  
 마필수는 오장곤의 숨이 아직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안심했다. 오장곤은 마필수를 보자 기다시피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장곤은 손짓을 하여 주위를 물렸다.  
 “스님, 약조하셨던 그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설마 허언을 하겠습니까? 여기 그 물건 대령했습니다.”  
 마필수는 해골 하나를 내놓았다. 모양새로 보면 여느 해골과 다를 바 없었으니 오장곤으로서는 적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수족처럼 부리는 천병달이 마필수의 꿈과 의상대에서의 일을 모조리 보고 하자 마침내 오장곤의 얼굴이 생기가 펴졌다.  
 “제가 봤습니다요! 이 두 눈으로 푹푹히 봤습니다요! 여기 계신 이 선사께서 원효대사의 해골을 파내는 걸 분명히 봤습죠, 예, 예.”  
 천병달은 다시금 확인하다시피 같은 보고를 반복했다. 오장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새벽이슬 받은 물을 대령케 하여 해골에 부었다. 그리고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해골에 입술을 대 별척별척 마셨다. 한 몇 분쯤 흘렀을까. 오장곤은 갑자기 기도가 막힌 듯 제 손으로 목을 조이는 시늉을 하더니 졸도를 해버렸다. 그러자 오장곤의 식솔들과 하인들은 난리가 나 어쩔 줄 몰라 했다. 성질 급한 집사는 당장 저 땡중을 잡으라고 성화를 부렸다.  
 당황하긴 마필수 쪽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을 원효의 해골이었다. 그냥 아무 해골에 이슬을 담아 마신다한들 사람이 갑자기 졸도하리라곤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혹시 해골에 남아 있는 원혼이 오장곤에게 해를 끼친 것일까,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본들 오장곤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마필수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영문을 몰라 했다.  
 “너 이 땡중아! 다시는 이 부근에 얼씬거리지 말거라! 또 다시 눈에 띄었다가는 곧장 관아로 넘겨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대문 밖에 내동댕이쳐진 마필수 앞에 ‘튀이’ 하고 뺨은 침이 떨어졌다.  
 “재수가 옴 붙은 게로군! 하필 저 영감탱이가 이때 졸도를 할 줄이야!”  
 어차피 생사가 불분명하던 오장곤이었다. 마필수로서는 돈을 지불 받을 때까지만 오장곤의 숨이 붙어 있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운도 여기까지인지 오장곤은 하필 해골 물을 마시자마자 혼절해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두둑이 받은 노잣돈 300냥 중에 아직 280냥이 남아 있었다. 마필수는 이걸로 어디 가서 장사나 해볼 작정을 세웠다. 그는 오장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막에 거처를 잡았다.  
 한편, 마필수가 쫓겨나자 오명산은 분에 겨워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속은 것도 분하지만 이대로 부친 오장곤이 죽을까 염려됐던 것이다. 그는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아버님’, ‘아버님’ 하며 오장곤을 흔들었다. 하인들은 그런 오명산의 효성이 지극하다며 그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오명산의 효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는 내심 오장곤이 하루속히 죽어 가산을 물려받을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필수가 시주승으로 둔갑하여 찾아왔을 때에도 심사 같아선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어 했다. 혹시나 고승이 오장곤의 병을 치유할까 염려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인들 여럿이 마필수를 본 터라 마지못해 오

장곤 앞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해골 물 타령도 끝이 났고, 오장곤도 정신을 잃고 혼절하였으니 오늘밤만 버티면 된다 싶었다. 그는 애써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눈물만큼은 흐르지 않았다.

“아버님!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이 많은 가산은 저 혼자 어찌 감당합니까! 아버님!”

오명산은 간절한 척 오장곤을 불렀다. 하늘도 그 거짓 효심에 감동하였는지 오장곤이 난데없이 눈을 번쩍 떴다.

“애비야, 날 불렀느냐?”

오명산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자신이 졸도할 뻔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놀란 표정을 감추고서 기쁜 미소를 얼굴에 이식했다.

“아버님!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끼, 이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긴 왜 죽어!”

“아니, 그럼 그 해골 물이 정말 효험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명산은 불심이 약했던 자였으나 눈앞에서 기적을 보자 새삼 부처의 위력에 놀라워했다. 오장곤이 아둔한 아들을 일깨웠다.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디 가업을 물려받겠느냐! 이 애비는 이미 오래 전에 이미 다 나왔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나오셨다니요?”

오장곤은 오명산에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말해주었다. 오장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지어낸 얘기에 불과했다. 오장곤이 이것저것 약을 주워 먹다가 탈이 난 건 사실이었다. 그도 처음엔 자신이 중병에 걸린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방문(榜文)까지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중병이 아니었다. 오장곤은 한 보름을 시름시름 앓다가 푹 나아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 앞에서는 곧 죽을 사람처럼 시늉을 하였다. 그건 오장곤만의 속셈에 따른 연기에 불과했다. 방문이 붙고부터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었다. 하지만 실은 오장곤은 누군가를 기다렸었다. 원효의 해골바가지에 물을 떠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자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영리하지는 않지만 충직한 천병달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주막에서 원효대사와 소요산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그 내용이었다. 그 외의 전체적인 계획은 천병달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 천병달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막에서 원효와 해골 그리고 소요산 이야기를 던지시 했고, 마필수가 그걸 넌죽 물었던 것이다. 애초에 소문을 퍼트린 자도 마필수였다. 그는 천병달을 통해 일이 성사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시주승이 된 채 오장곤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이다. 물론 오장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척해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상에, 몇 백 년 전의 해골이 여태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장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피가 용했는지 껄껄 웃어 젖혔다. 오명산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오장곤에게 물었다.

“아버님, 그럼 대체 왜 그런 일을 꾸미신 겁니까? 왜 그 가짜 시주승에게 소요산까지 다녀오도록 시키신 겁니까? 소요산에 가봐야 원효가 마셨다는 그 해골바가지가 없다는 건 진작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아둔한 놈! 그런 해골 얘기 따위는 애초에 믿지도 않았단니까.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죽을병에 걸려 오늘내일하는 줄로 알고 있지?”



“예.”

“죽어가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주승에게 영험한 해골을 구해오라고 부탁한 소문도 이미 자자하게 퍼졌지?”

“예, 그렇지요.”

“자, 보아라. 난 그 해골 물을 마시고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 않았느냐!”

오장곤은 아차 싶어 무릎을 탁 쳤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부친의 꾀를 못 따라갈 듯싶어 새삼 오장곤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럼 이제 그 해골을 파시겠다는 말입니까? 해골바가지로 냉수 퍼 담듯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오장곤은 대꾸 대신 흐흐흐 하며 음흉한 웃음만 흘렸다.

## 8. 야단법석

오장곤이 해골 물을 마시고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부터 장안엔 난리가 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푼 꽤나 주무른다는 자는 오장곤 대문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전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해골을 사고자 했다. 어차피 한 번 물을 떠 마시고는 되팔면 되기 때문이다. 오장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는 해골을 절대 팔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아니, 글썄, 우리 주인 나리께서는 해골을 안 판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이만 돌아가슈!”

하인들이 이렇게 대문 앞에서 쫓아내도 사람들은 더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애간장을 적당히 태우고서야 오장곤은 해골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해골을 절대 팔 수 없으나 천 냥씩 받고 해골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겠노라 말했다.

“어차피 평생 먹을 보약 한 번에 먹는다 생각하고 천 냥 쥐버리지 뭐!”

“까짓 거 나도 주겠네! 여보게, 오 부자! 내게도 꼭 좀 한 모금 주시게!”

그러나 오장곤은 사람을 가려서 해골 물을 허락했다. 나이가 젊은 사람, 혈색이 좋은 사람, 어디 아파 보여도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였다. 젊은 사람과 혈색 좋은 사람은 어차피 해골 물을 마시거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니 그대로 쭉 건강하면 그만이다. 어디 아파 보여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몸에 좋다는 약과 명의를 두루 거쳤을 것이다. 굳이 이 해골 물을 안 마셔도 이미 몸이 거의 다 나은 자들인 셈이다. 나아가는 차에 해골 물로써 점 하나를 찍어버리면, 쾌차의 공은 모조리 해골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돌아간 후에 알아서 소문을 퍼트려줄 것이다. 더러 병약한 자가 해골물을 마시고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따지며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오장곤은 불심이 모자라 약발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도리어 면박을 주곤 했다.

이런 식으로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 하루에 수 만 냥을 벌었다. 그에게는 이제 시전의 장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정승판서까지 그에게 줄을 서야 했으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조롱한다는 말은 있어도 죽은 백골이 산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말은 없었다. 오장곤은 그 묘한 조화를 부려대고 있는 것이다.

주막에서 오장곤의 소식을 들은 마필수는 울화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는 노잣돈 300냥에 해골을 들고 의상대에 오르지 않았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장곤에게 농락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나마 장사나 해볼까 싶어 남겨두었던 200냥 남짓도 술판에 다 써버린 터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한 백성들은 오장곤의 해골 물을 감히 마셔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요산에 원효대사의 신통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돌고부터 백성들은 소요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 기운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에 한적했던 이담(伊潭)은 소란스런 고을로 변해갔다. 얼마나 사람들이 뺏길나게 산을 오르내렸던지 산 초입에서 자재암에 이르는 길이 산길답지 않게 평탄하게 매끈하게 깎여버렸다. 자연스레 산길도 넓어졌음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음이다. 그 길은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도 소요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 사건 덕분에 숨 한 번 헐떡이지 않고 자재암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소요산 행궁에 머물던 상왕 이성계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백성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두고 볼 수만도 없었다. 자신은 이미 왕권을 던지고 한성을 떠난 몸이었다. 백성들이 자신을 보러 소요산에 오는 것은 아니었으나 태종 이방원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허허, 그 산 참 소란스럽고도 요란하기도 하구나!”

이성계는 이렇게 한탄하고서 함흥으로 행궁을 옮겼다.

소요산(逍遙山). 원효대사가 자재무애(自在無礙)하며 자유로이 노닐어서 소요산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아니면 태조가 소란스럽고 요란하다고 한탄한 앞말을 따서 소요라고 이름 붙여진 것일까. 해골바가지가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이 산이 한반도의 한복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음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음이다. 춘하추동 언제 찾아가든 고요하고 넉넉한 산, 아담하나 골짜기가 깊은 산, 계절에 따라 둔갑술을 부리는 산, 그런 산에서 가만히 소요(逍遙)하는 낙을 즐겨봄이 어떠할까.